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 광야의 소리

## Voice in the Wilderness

3-4월호  
2019년



관련기사: 14페이지

코로나도 사적자에서 본  
리오그란데강과 샌디아산

###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한인회에서 주최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3·1절 독립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행사를 뉴멕시코 한인회에서 주최했다. 교민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성희 사무총장의 사회로 식을 시작했다. 이명길 목사의 개회 기도에서는 1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많았던 우리 조국을 사랑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2페이지로 계속>

### 3/4월호 주요내용

- 한인회 소식 | 3.1절 기념행사 : 1
- 한인회 소식 | 정월 대보름 행사 | 신동완 : 1
- 한국학교 | 한국학교소식 | 박영신 : 3
- 지역사회소식 | 한인회장 이취임식 : 4-5
- 지역사회소식 | 지역사회소식 : 6-7
- 교회소식 | 나바호 전도여행 | 황경희 : 8
- 칼럼 | 동성애를 반대하는 연합감리교회 | 김기찬 : 9
- 건강상식 | 치과이야기(2) | 윤자정 : 10
- 수필 | 뉴멕시코특급 | 이정길 : 11
- 여행 | 타박타박 미국여행 : 아리조나(1) | VOA Korea : 12
- 요리 | 제1회 요리교실을 마치고 나서 | 최신옥 : 13
- 뉴멕시코역사 | 코로나도와 쿠아와 푸에블로 | 이경화 : 14
- 영어상식시리즈 | 영어이야기(1) | 이상목 : 16
- 미국역사 | 미국의 국가 : 17
- 한국역사 | 삼일운동과 유관순 : 19

## 한인회 소식

## 정월대보름 행사

지난 2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정월 대보름 행사가 한인회관에서 있었다.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은 희망찬 새해를 소망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기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풍성한 세시풍속을 가진 우리 민족의 주요 민속 명절이었다. 전임 회장님들을 포함한 많은 뉴멕시코 거주 한인분께서 이번 행사에 참석하셔서, 뉴멕시코 한인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가지기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준비된 음식 맛있게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는 민명희 한인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한 행사는, 이성희 사무총장의 사회로 총 3부 행사가 진행되었다. 윤성렬 목사님의 식사 기도 후, 한인회 임원, 이사, 그리고 봉사자들께서 정성껏 준비한 정월대보름 음식으로 점심을 마치고, 1부 “나도 가수다” 노래자랑 행사가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노래자랑 행사는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클릭커를 통해 심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결과는 해후를 부른 임넨시님이 1등을 차지하였다. 부상으로 받은 삼성 태블릿 PC가 주어졌고 임넨시님은 받은 부상을 다시 행사측에 기부했다. 행사

신동완

Nes Mexico Tech 교수  
한인회 한국학교담당 부회장

중간중간에는 경품 추첨을 통해, 참석하신 많은 한인분들에게도 경품이 주어지는 시간을 가졌다. 곧바로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윗놀이, 그리고 마지막 3부 행사에서는 모래주머니 던지기가 진행되어 오후 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월 대보름 행사를 위해 마자원님이 1000불, 박달규, 최신옥 부부가 쌀 20 포대, 안혜경님이 쌀 10포대, 위점덕님이 배 2 박스, 박찬영 이사장이 300불, 정풍자 전임회장이 200불, 로스 루나스에 있는 윤자정 치과에서 300불, 윤흥규, 마명순 부부가 300불 상당의 자전거, 그리고 김태원, 함은경재무가 음식을 후원했다. 오는 3월 1일에는 삼일절 기념행사가 한인회관에서 오전 11시부터 열린다. 올해는 삼일절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만큼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 3·1절 100주년 기념행사(계속)

민명희 한인회장은 기념사에서 100년전 남녀노소의 차별없이 독립만세운동에 단결했던 선조들의 3.1정신을 이어 받고 이 정신을 여기서 자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서 한국인의 긍지를 갖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미독립선언 영상을 시청하여 역사를 회고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영상을 시청했다. 현대어로 고쳐서 쓴 글이어서 더욱 감명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당시 우리 선조의 나라 잃은 슬픔을 공감할 수 있었다. 독립선언문 끝부분에 나오는 공약 3장을 박찬영 이사장이 낭독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행동의 지침이 될 귀중한 정신이고 지켜나갈 길이라 여겨진다. 공약 3장을 아래에 옮긴다.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한 거리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탄지 말라.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뚝뚝하고 정당하게 하라.

마지막 순서는 100년전 "대한독립만세"를 회상하며 한명섭씨의 선창에 따라서 온 회중이 태극기를 높이 들고 만세 3창을 했다. 식을 마친 후에는 한인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굴밥 점심을 함께 나누었다. 로스알라모스에서 오신 김석훈 목사께서 식사 기도를 해주셨다. ■





# 뉴멕시코 한국학교 소식



박영신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봄을 알리는 3월이 코앞이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로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저희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1월 마지막 주에 새 학기를 시작하여 어느새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늘 학기가 시작할 때면, 새로운 결심을 하고 부푼 기대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시작하며 목표로 삼았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한인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벌써 많은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학기에는 학부모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개학 전에 부모님들과 한인회 회장님, 한국학교 담당 부회장님과 함께한 면담을 통해 한국학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과 의견, 건의사항 등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사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학부모 위원회의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셨고 늘 말없이 한국학교의 크고 작은 행사를 도와주시고 애써주신 진계선 어머니(진수민, 수빈형제)께서 학부모 대표로 한해를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한번 오는 주말학교이지만 학교로서의 격식을 따르고 아이들에게 행사에 참여하는 자세도 가르칠 겸, 개학식과 종강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개학식에는 대부분의 학부모님과 한인회 임원님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고 작년에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와 김구재단에서 주최한 ‘나라의 큰 별 김구’ 독후감 대회에서 입상한 한서희 양의 시상전달식을 겸하여 진행해 더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규모도 작고 처음하는 행사인지라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의

참여로 식순을 만들고 함께 진행하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설날을 맞아 학부모 위원회의 도움으로 아이들과 만두를 직접 빚어 떡국도 먹고 즐거운 율놀이 게임도 진행했습니다. 남은 학기에는 더 즐겁고 다양한 행사들로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아무쪼록 교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뉴멕시코 지역사회 소식

# 뉴멕시코 한인회 제17/18대 회장 이취임식

2019년 1월 19일 오후 5시 뉴멕시코주 한인회관에서 제18대 한인회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성희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취임식은 박순삼 초대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 의례, 양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이어졌다. 박순삼 초대회장은 “이임하는 문상귀 회장단의 노고와 성과를 높이 사고 취임하는 18대 민명희 회장단을 축하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요청을 받았을 때

자발적으로 돕는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미 침례교회 윤성렬 목사는 17대 리더십의 수고와 헌신, 봉사에 위로를 주시고 민명희 회장에게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함께 세운 리더십에 은혜를 베풀어 한인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사회자의 간단한 한인회 연혁 발표가 있고 난 뒤 2, 3대 이경화 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이경화 전 회장은 “회장직을 잘 수행하고 지역사회에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명예제대하는 문 회장에게 감사하다. 힘든 봉사의 길을 택한 민명희 회장의 의지가 놀랍다.



1987년 4월에 150명의 한인이 모여 창립한 지 32살 성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수고한 전직 회장님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민명희 회장에게 첫째로 한국과 미국, 뉴멕시코 한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일해주기 바란다.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환영사에 임했다.

이어 문상귀 회장이 지난 임기 수고한 임원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민명희 회장이 문상귀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문상귀 회장은 이임사에서 원근 각지에서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을 소개하고 18대 한인회 출범을 축하했다. 말은 직책은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라고 화합하고 격려하는 한인회가 되기를 당부했다. 회장직이 쉬운 자리가 아님을 인지하고 두루 살피며 행정을 이끌기를 바라고 교민들에게는 부족함이 보여도 격려하며 봉사하는 뉴멕시코가 되기를 부탁했다. 역대 회장단의 노고에도 감사하며 16대에서 인수 한 총액 2만 불 보다 5천 불을 더 많게 넘겨주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이어 최성원 선관위원이 민명희 회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이어 민명희 회장이 이사과 임원 소개와 임명장을 수여하고 취임사를 했다. 민 회장은 참석한 이들을 빠짐없이 언급하며 감사하고 “특별히 행사를 위해 3일간 주방에서 수고한 이들에게 감사하고 이 자리까지 이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다. 또한, 대화와 소통, 교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함께 갈 것을 약속하고 공약들을 실천해 알차게 결실 맺는 한인회가 되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자가 내빈들을 소개했다. 구태원 주 로스앤젤레스





뉴멕시코 지역사회 소식

뉴멕시코 한인회  
제17/18대 회장 이취임식 (계속)



영사, 김일진 직전 서남부 연합회장, 이석찬 현 서남부 연합회장, 이성일 서남부 연합회 부회장, 폴송 전 서남부 연합회장, 이동섭 LA 동부 전 회장, 이정우 서남부 연합회 부회장이자 11대 뉴멕시코주 한인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어서 구태원 영사가 총영사를 대신해 “뉴멕시코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심 감사하다. 앞으로도 뉴멕시코 한인회가 따뜻한 마음으로 동포사회를 아우르는 한인회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석찬 서남부 연합회장이 서남부연합회를 소개하고 뉴멕시코 한인회가 동포사회가 기댈 수 있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한인회가 되고 한인 1세대들은 2, 3세대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주류사회에 잘 자리 잡는 일을 돕기를 바랐다. 이어 2020년 센서스에 모든 분이 참석해 주기를 당부했다.

정풍자 전 한인회장이 “문상귀 회장은 코원 창립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올해 행사에는 서남부연합회에서 많은 임원들이 참여해주셨다. 뉴멕시코 한인회에 많은 후원을 해 주실 것 같다고 해 좌중의 박수를 받았다. 한가지 당부는 뉴멕시코가 단합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화평하게 소통할 수 있는 한인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남부 직전 연합회장이자 샌디에이고 회장인 김일진 회장이

뉴멕시코 한인회가 14년 전에 회관 건립할 때 방문한 경험이 있다며 감회에 젖었다. 김 회장은 “한인회장은 머슴과 같은 자리다. 본인이 한인회장을 할 때는 2년 임기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회관에 출근했다. 봉사는 그만큼 아름다운 일이다. 서남부 연합회가 40년 동안 행사에 금일봉을 전한 선례가 없었는데 격려금을 전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다”며 금일봉을 전했다.

이성희 사무총장이 임원진 소개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18대 임기에 달라진 것은 펀드나 행사진행, 사업 계획의 역할을 담당하는 미래준비위원회 구성과 이경화, 김준호, 정풍자, 신광순, 김두남, 조규자, 김영신 전직 회장단을 고문으로 임명한 것이다. 또한 윤리위원회를 구성 김두남, 김영신, 정대식 씨를 임명한 점이다. 특히 어버이회와 한국학교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사장에는 박찬영, 부이사장 김덕향, 이사 서혁상, 임해숙, 정양송, 조문성, 조영량, 최희수, 김태원, 정해중 씨가 봉사한다.

임원에는 수석부회장에 정대식, 한국학교 담당 부회장 신동완, 한국학교 교장 박영신, 교감 정지예, 한국학교 이사장 조규자, 고문 임경애, 재무 마명순, 어버이회 담당 부회장 임낸시, 재무 김숙희, 어버이회 회장 김길자, 사무총장 이성희, 연예분과위원

이희정, 재무 분과위원 함은경, 미래준비위원 윤홍규 씨가 임명되었다. 사업목표는 미래지향적인 행사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식사 기도는 산타페 한인교회 김석훈 목사가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을 통해 이들이 물댄동산 같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뉴멕시코에 기쁨과 축복이 통하여 흐르게 하시기”를 기도했다.

본식을 마친 후 정찬을 나누면서 민명희 회장의 아들이 기타연주와 노래를 했다.

(아리조나타임즈 2019.1.20 이은주기자) ■



## 뉴멕시코 지역사회 소식

## 아리조나 타임즈의 뉴멕시코 뉴스 1월말로 종간



주간지 아리조나 타임즈는 2015년 4월부터 뉴멕시코와 아리조나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뉴멕시코 판'을 신설하여 이곳 한인사회의 소식을 3개의 한인 식품점을 통해 무료 배포해 왔다. 뉴멕시코와 아리조나, 투산 지역에 동시 발간된 신문을 통해 아리조나와 투산 지역에 뉴멕시코를 알리고 정보를 교환하고 교민들이 교류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신설 판부터 기사를 담당해 온 이은주 기자는 주님의 교회 김의석 목사 사모로서 내조 역할을 겸하면서 바쁜 가운데서도 뉴멕시코주의 소식을 전해 왔다. 이은주 기자는 2019년 1월 말을 끝으로 뉴멕시코 소식을 접었다는 소식을 전해 오면서 "지금까지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의 기사를 매주 써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훗날에라도 온라인을 통해 지나간 기사를 보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며 추억할 자료를 남긴 것이 무엇보다 보람 있습니다. 교민들의 도움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가장 적당한 시기에 마무리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한인 커뮤니티가 작아 소재가 한정된 점이 아쉬웠습니다. 한인회 홈페이지와 광야의 소리가 앞으로도 계속 한인 사회 소식과 뉴멕시코 소식을 알릴 것이기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신문을 애독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교민들과 한인회에 감사드리고, 특히 매 주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신문을 진열해 주시고 관리해 주신 A1, 아리랑, 김스 한인마켓 업주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뉴멕시코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처음부터 마지막판까지 꾸준히 광고주가 되어주신 김영신 전한인회장님과 좋은 기사 거리를 제공해 주시고 제가 휴가 때 마다 기사 작업을 도와 주신 이경화 장로님과 소식을 알려주신 단체장님, 아리조나 타임즈 관련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뉴멕시코의 한인사회에 일어나는 기쁜일이나 슬픈일이 알려지고 기록되어온 역사기록이 끊어지는 듯한 아쉬움이 크다. 작은 앨버커키 한인사회와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해 재정적 부담을 마다하고 뉴멕시코 뉴스난을 지금까지 운영해주신 장재원 사장님과 기사를 써오신 이은주 기자께 감사를 드린다. (글: 편집부) ■

## 2019년 원거리 상반기 순회영사

주LA총영사관은 뉴멕시코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2019년 상반기 순회영사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순회영사업무: 여권, 가족관계등록(출생·혼인·이혼·사망), 국적(상실·이탈), 병역(국외여행허가), 공증(위임장 등 영사확인), 재외국민등록(등록·등본발급), 사증(한인만 신청 가능), 신원조사증명서 신청 등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

2. 실시일정 및 장소: 3월26일 화 9:00-14:00

뉴멕시코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3.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 민명휘 한인회장 505-321-7274 stellahmin@hotmail.com

\*민원업무 내용 등 문의: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순회영사실

- 이메일: consul-la@mofa.go.kr

- 전 화: 213-385-9300, 내선번호 221 또는 222 ■

## 로스루나스 페이스북 데이터센터 그랜드 오픈

로스루나스에 건설 중인 페이스북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온라인에 올라가서 가동하기 시작했다. 약 2년 전에 기공식을 하고 공사를 시작해 건설 중에 있었던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가 드디어 운영을 시작했다고 페이스북의 시설 담당 부사장인 레이첼 피터슨 씨가 지난 2월 7일 그랜드 오픈 자리에서 발표했다.

업무를 시작한 건물은 공사 중인 6개의 건물 중 하나이고 현재 15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5개의 건물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매일 1,100명의 인력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2023년에 5개의 건물이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때에 직원 수는 약 300명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한다.

이곳에 시작한 데이터 센터는 페이스북이 미국 내에 사용하고 있는 11개 데이터센터 중 하나이며 일곱 번째로 가동한 데이터센터이다. 페이스북은 이밖에도 뉴멕시코의 친환경 전력공급의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소를 건설하여 396메가와트 전력을 공급할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





뉴멕시코 지역사회 소식

## 한국의 전통요리로 한국을 알리다.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2019년을 맞아 신규 사업의 하나로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요리 교실은 뉴멕시코 한인회의 이사이자 한국식당 및 한식 재료가 부족한 앨버커키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로 정평이 난 최신희 여사가 후원하고 있다.

1월 12일에 첫선을 보인 김장김치 클래스에는 대학생에서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김치를 만들었다. 특별히 최신희 여사는 배추를 절이는 방법부터 담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설명과 시범을 보였으며 이 외에도 각 계절에 맞는 김치의 종류를 소개하였다. 특히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내 몸에 보약이 되는 재료이며 체질에 맞는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장김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요리인 수육을 삶는 법과 시식도 겸해 많은 참가자가 수업에 큰 만족을 표했다.

박영신 교장은 이 요리 교실에 대해 단순히 학교 재정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한국을 알리고, 이로써 한국학교와 한인회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요리 교실의 수익금은 따로 구분되어 학교의 발전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하며 수업에 대해 어떤 수고비도 받지 않은 최신희 여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다음 요리 교실은 4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로, 메뉴는 채식자를 위한 녹두전과 오이 김치이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한국학교 박영신 교장(505-506-6936)에게로 하면 된다. ■

## 뉴멕시코주 한인회 회관 방범창살 설치 모금 의뢰

지난 2월 23일 새벽 한인회관 창고에서 한인회관 용품을 도난당했습니다. 김치 축제에 사용되었던 텐트, 엠프, 접이식 테이블등 손해 액수는 \$4000 상당입니다. 보험회사에 확인한 결과 불행하게도 저희 한인회관의 보험에서 디덕터블은 \$10,000 이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기회에 저희 한인회 건물의 안전을 위해 보험 디덕터블을 낮추고 보안카메라와 보안 창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에 없던 금액이라 비상 예산안에서 집행할 예정이며 모금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뜻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네이션은 한인회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누르시고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인회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KANM,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

## 산타페 한인교회 성경공부 워킹샵

산타페 한인교회는 3월17일(주일) 강사 백은실(커피브레이크 국제강사)를 모시고 소그룹성경공부 워킹샵을 개최합니다. ■

소그룹성경공부의 이론과 실제 2019년 산타페한인교회 주최

# “산타페 소그룹 성경공부 워킹샵”

일시: 3월 17일(주일) 오후1시  
장소: 산타페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강사: 백은실  
글로벌 커피 브레이크 대표  
(Global Coffee Break Representative &amp; Coordinator)  
국제 코스타 강사  
미국 복음 방송 "말씀에서 배우는 소그룹의 지혜" 촬영 진행자

서약 보증을 받는 자(두번노) 2007  
살을 번파시키는 성경일련학습(커피브레이크)2007  
살을 번파시키는 성경일련학습(두번노) 2012  
살을 번파시키는 커피브레이크(커피브레이크)2017



## 나바호 쉽스프링 3차 전도여행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에서는 2019년 1월 21일 쉽스프링이라는 나바호 지역으로 제3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2명의 봉사자분들과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도네이션 물품들을 이삿짐 트럭을 빌려 싣고 다섯대의 차량으로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달려가서 도착했습니다.

저희들은 챗터 하우스라는 곳에서 9시30분부터 봉사자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내위원으로 봉사하신 봉사자분들은 들어 오시는 분들을 일일이 반기고 그분들의 출석 여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상당히 춥고 오후에는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00명의 형제자매님들이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또는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미용기술이 있으신 봉사자분들께서 그분들의 머리를 잘라주시고 또한 위생상태나 건강 상태를 점검해 주시기 위해서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봉사자분들이 봉사와 함께 도네이션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치약과 칫솔, 비누 등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방에서도 며칠 전부터 준비한 80파운드의 고기와 14병 정도의 김치로 김치찌개와 밥을 준비하시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10시30분부터 저희는 그분들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으로 봉사에 주신 봉사자분들과 그곳에 오신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김기천 목사님께서

황경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선교부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과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12시 30분 정도에 그분들에게 100인분이 넘는 점심을 대접하고 도네이션으로 들어온 스팸과 물품을 전달해드렸습니다.

한가지 그날 한승우 전도사님께서 준비해가신 새마을 운동이라는 영상을 그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큰 경제적 반환점을 주었던 그때의 영상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에게 궁금증과 도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곳에 많은 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풍요한 미국 땅에서 물도 없고 전기도 없이 알코올과 삶의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흔살도 안된 젊은 남자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 되물림을 반복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 동성애를 반대하는 연합감리교회

지난 2월 26일(화) 오후 3시 55분에 연합감리교회 입법 위원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연합감리교회의 기본입장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임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연합감리교회는 교회 헌법에 의하면 동성애를 반대해왔다. “동성애를 행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한다고 공언한 사람은 사역 후보자로 허입될 수 없으며 교역자로 안수 받을 수도 없으며 연합감리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을 수도 없다.”란 조항을 한 예로 들 수 있다(연합감리교회 장정 ¶1304.3).

그런데 미국 안에서 동성애에 관한 다양한 해석과 풍조가 확대되면서 위와 같은 교회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감리교회 내에 동성애 목사와 심지어는 동성애 감독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가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헌법조항들을 바꾸자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결국 2016년에 열렸던 총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시 연합감리교회는 심각한 분열 위기에 직면했었다. 그래서 당시 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올해 2019년까지 연기시키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특별 위원회(Commission on a Way Forward)를 발족해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연구 제안을 하기로 했었다. 2019년 2월 세인트 루이스(St. Louis)에서 열릴 특별 총회에서 동성애 법안을 확실하게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작년 5월에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Council of Bishops)는 특별 위원회(Commission on a Way Forward)와 논의해 온 세 가지 모델을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한 교회 모델(One Church Plan)”을 추천했다. 한 교회 모델이란 현 교회법에 있는 “기독교 가르침에 어긋나는 동성애”라는 구절을 비롯해 동성애 관련 금지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연회 안에서는 동성애자 목사들을 안수하여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동성애자들을 연합감리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이 모델은 동성결혼, 동성애 목사 안수를 지지하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보호해주는 항목 또한 추가했다. 결국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상관없이 모두를 포함하는 “한 교회”로 연합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연합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감독들의 모임인 총감독회에서 이 “한 교회 모델”을 다수결로 결정해서 추천했던 것이다. 감독들을 위시해서 미국 내 여러 목회자들은 이 “한 교회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한 교회 모델” 외에도 현재 교단 헌법 안에 있는 동성애 문제를 유지할 뿐 아니라 더 강화하자는 “전통주의 모델(Traditional

Plan)”도 있었고, 또한 개체 교회가 보수, 중도, 진보 성향에 따라 맞는 연회에 소속하고 그 성향을 기반으로 3개의 지역총회를 구성하자는 “지역총회 모델(Connectional Conference Plan)”도 있었다.

문제는 어떤 모델이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교회나 목사 이탈현상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한 교회 모델”이 결정될 경우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감리교 전통을 고수하려는 보수층이 떨어져 나갈 것이란 말이 돌았다. 또한 전통주의 모델이 결정될 경우에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진보층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측과 확신이 난무하면서 지난 2월 말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감리교 헌법을 개정하는 특별 총회가 열린 것이다. 2월 25일 월요일 오전 회의가 끝나면서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다. 총감독회에서 추천한 “한 교회 모델”이 부결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전통주의 모델”이 채택이 된 것이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었다. 그러나 이 모델이 확정되려면 다음날 열리는 본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했다.

다음 날인 2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55분에 총감독회에서 추천한 “한 교회 모델”이 소수 제안(Minority Report)으로 다시 표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부결되었다. 이후 3시 55분에 “전통주의 모델”을 표결에 붙였고 결과는 찬성 438표(53.28%), 반대 384표(46.72%)로 통과되었다. 워낙 진보층의 소리가 세고 컸으며 전통주의 모델은 별로 예상하지 않았었기에 이 결과에 여러 사람이 당황하는 모습들이 확인했다.

올해 2019 특별총회는 각 지역에서 온 864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이중 58%는 미국 내에 있는 교회 대표들이고, 30%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대표들이며, 10%는 필리핀, 유럽, 유라시아 교회 대표들로 이루어진다. 연합감리교회는 전 세계 1,250만 명의 교인을 갖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류 교단이다. 이중 미국 내에는 약 7백만 명의 교인들이 있다. 미국 내에 연합감리교회의 교세는 점점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에 있는 연합감리교회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측은

<10 페이지로 계속>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 치과 이야기 2

2019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치과 진료 중 가장 기본적인 진료 중 하나인 발치 그리고 그중 사랑니 발치 그리고 발치후(이 뽑은 후) 뼈 이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로 심한 풍치 혹은 충치로 인하여 이빨을 더는 살리 수 없는 경우 혹은 교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랑니로 인한 잇몸이 붓는 경우 치아를 뽑는데 이러한 경우를 발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발치는 단순 발치 (Simple Extraction), 난발치 (surgical extraction), 매복치 (3rd molar extraction) 로 나누어지고 매복치는 다시 여러 종류 (Soft tissue impacted, Partial bony impacted, Fully bony impacted)로 나누어집니다.

이를 뽑은 직후에 발치 부위에는 혈액으로 채워지고 혈병(피떡)을 형성합니다. 혈병은 창상부위를 보호하고 나중에 육아조직으로 대체되므로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과정이 잘못되면 부분적 골수염이 생기고 아주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데 이를 치주골염 (Dry Socket: 잇몸골염)이라고 합니다.

사랑니는 사랑을 알게 될 시기에 나온다고 해서 사랑니라고도 하는데, 입안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치아로서 지치 (Wisdom tooth) 라고도 불립니다. 정상적으로 위치한 사랑니를 모두 발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기적 검진으로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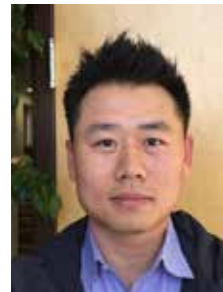
사랑니 발치전 X-ray 촬영은 필수이며 치아와 신경 등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분 마취하에서 사랑니를 뽑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신마취 하에서 사랑니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위치한 사랑니는 마취 후 발치용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턱뼈에서 제거합니다. 완전히 나오지 못하고 턱뼈에 묻혀 있는 경우에는 국소 마취 이후 사랑니를 덮고 있는 잇몸을 절개하고 치아가 보이도록 잇몸을 벌려 줍니다. 때에 따라 치아주위의 뼈를 삭제할 수도 있으며 치아를 조각내거나 분리하여 제거하기도 합니다. 대략 15-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발치 이후 36시간은 절대안정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인 발치 이후 주의 사항으로는

1. 적어도 한 시간 이상 거즈를 꼭 물고 계십시오.
2. 48 시간 얼음찜질과 음식을 차갑게 드십시오
3. 1주일간은 죽과 같은 유동식 음식을 권해 드리며 맵고 뜨거운 음식은 될 수 있는 대로 48시간 자제하십시오.
4. 48 시간 이후 온찜질을 권해드립니다
5. 식사 후에는 따뜻한 소금물로 자주 청결하게 해주십시오.

**윤자정**

Los Lunas Smile  
NAPA Family Dentistry



### 6. 음주와 흡연은 적어도 1주일간 자제 하십시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뽑으셨을 경우에는( 사랑니 발치를 제외한 경우) 남아있는 잇몸뼈를 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잇몸뼈가 잘 아무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임플란트가 보편화한 지금은 임플란트를 잘 지지해줄 잇몸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뽑은 후 잇몸뼈 보존을 위해 뼈 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보철물 (틀니, 브릿지 등)을 하더라도 잇몸뼈의 모양이 잘 유지된다면 보철물의 모양이 정상적으로 예쁜 형태를 갖출 수 있고, 유지 관리하기에도 좋은 상태로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뺏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으로 최대한 자기 치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동성애를 반대하는

### 연합감리교회 <9 페이지에서 계속>

신학적인 해석적 입장에서 변론을 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측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고수하는 입장으로 변론을 하면서 서로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비록 전통주의 모델이 결정은 되었지만 이후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이번 특별총회를 하면서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인도를 간구했다. 이런 기도와 간구는 앞으로도 연합감리교회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セントルイス에서 열린 GC-19 UMC총회



수필

# 뉴멕시코 특급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미국의 최초 간선 도로는 강이었다. 강은 곧 지표수인데, 뉴멕시코 주는 강우량과 지표수 두 가지가 다 모자라 오래 전부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강이 수송 수단의 원천을 제공하지 못하는 바람에 옛날 뉴멕시코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걸어 다녀야만 했고, 나중의 탐험가들이나 정착자들은 말 또는 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지리적 조건 때문에 고립되어, 마흔일곱 번째로 주가 되었으며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뉴멕시코를 타주의 사람들은 지금도 멀고 낯선 곳으로 느낀다.

화물을 수송하는 기차가 뉴멕시코를 통과하기 시작한 것은 1879년부터이었다. 1934년부터는 가장 큰 도시인 앨버커키와 인근의 도시를 연결하는 기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여 1968년까지 계속되었으며, 1971년에는 엘에이와 시카고를 연결하는 암트랙이 여객을 싣고 지나다니기 시작한다.

주들을 연대시키는 25번 도로와 40번 도로가 각각 뉴멕시코의 남북과 동서를 건너지른다. 주도인 샌터페이에서 시작하여 중심 도시 앨버커키를 거쳐 벨렌까지 총 160킬로미터를 달리는 뉴멕시코 특급 열차 레일 런너가 완성된 것은 2008년이였다. 주 내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미래의 교통 체증을 예방하며, 통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철길로, 주의 남북을 관류하는 리오그란데와 25번 도로를 따라 달린다. 발착역 사이에 정류장이 열세 군데여서 도심에서도 서고 인디언 마을에서도 선다.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배차되어 있으며, 주말인 토, 일 두 날은 운행이 단축되고, 명절이나 공휴일에는 쉰다.

두견이과의 로드런너 roadrunner는 뉴멕시코 주를 대표하는 새다. 다리가 길고 호리호리하며, 건조하고 광활한 땅 위를 달리면서 살고 있어서 주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특급 열차의 이름



레일 런너는 기차라는 뜻의 rail 과 로드런너에서 따 지은 것이다. 기관차 앞부분과 2층으로 된 객실 벽에 그려진 빨간 바탕에 노란 무늬를 가진 로드런너가 사람의 눈길을 끈다.

차표는 모블앱으로, 온라인으로, 또는 기차에 올라탄 다음 승무원에게서 산다. 아홉 살까지의 어린이는 무료로 승차하고, 10 ~ 17세이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학생, 62세 이상의 노인, 지체 장애인, 신체가 불편한 참전 용사 등은 할인의 대상이다. 편도, 왕복, 한 달, 일년 치 표를 판매하며, 왕복 차표에 적혀 있는 유효 기간 1년은 볼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자동차 주차장, 플랫폼, 안내판 말고는 아무 것도 없는 정류장들도 이채롭다.

샌터페이역 구내는 그 자체가 하나의 명소다. 박물관이 여럿

자리 잡고 있어서 뉴멕시코 특유의 문화에 접할 수 있는데다가, 수많은 매점과 식당이 있어 이 지방에서 나는 특별한 물건들도 사고 향토 요리를 즐길 수도 있다. 거기에서 역에서 출발하는 무료 셔틀 버스가 샌터페이 시내에 있는 역사적인 국가 명소를 돌아볼 수 있게 한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수많은 건물들이 아름답게 보존되어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 채 샌터페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지근 거리에 문화 유적도 많다. 셔틀은 그밖에도 별난 건축 양식과 예술품을 광범하게 수집해 놓은 것으로 알려진 주의 종합 청사나 ‘박물관 언덕’ 등으로도 안내한다.

총착역 벨렌Belen은 1740년에 스페인 사람들이 정착하여 세운 평화로운 도시다. 이름은 베들레헴을 뜻하는데, 미국을 가로지르는 철도 간선이 지나는 교통의 허브가 되어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철도의 역사가 생생히 살아 있는 곳이다. 역에서 조금 걸으면 되는 곳에 유명한 하비 하우스 박물관이 있다. 매년 1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밤마다 300,000개가 넘는 전등이 박물관을 밝히고, 기발한 모양의 장식품과 손으로 만든 각종 전시물들이 50그루가 넘는 구내의 트리를 장식한다. 시의 이름에 걸맞게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기적’이라는 이름의 거리 행진도 펼쳐져, 12월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역은 기다리는 곳이고 만나는 곳이며, 보내는 곳이고 떠나는 곳이다. 가지각색의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아 오래 간직되게 하는 곳이다. 영화 특히 클래식 영화는 흔히 역두에서 손을 흔들어 작별하는 장면, 기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며 떠날 때까지 길게 키스하는 장면, 떠나가는 기차의 소음 속에서 소리쳐 청혼하는 장면 등을 찍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기차를 보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진다. 일상을 벗어나고 싶을 때면 나는 레일 런너를 탄다. 내가 사는 앨버커키는 특급 철도의 중간쯤에 있다. 한적해 보이는 인디언 마을을 지나노라면 어릴 적 시골 마을이 떠오른다. 가을에는 곱게 물든 단풍이 좋다. 겨울에는 황량한 들판에서 한가하게 모이를 찾고 있는 철새들과 함께 소나 말이 풀 뜯는 것도 본다. 그러다가 안정애의 ‘대전 블루스’ 를 흥얼거리고 있는 나를 보기도 한다. ■

# 타박타박 미국여행 : 아리조나(1)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한국어 방송에서 아리조나주 소개했다. 뉴멕시코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리조나를 소개한 방송 프로그램 녹취를 2부로 나누어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서입니다. 미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유, 독립...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개척'입니다. 네, 미국은 개척자의 나라죠. 제일 처음 신대륙을 발견한 이래 서부 개척시대로 이어지는 개척정신이 미국인들에게는 면면히 흘러내려 오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여러 서부 주들 가운데서도 가장 서부적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이야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애리조나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애리조나주는 미국 서남부에 있는 주입니다. 아래쪽으로는 멕시코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왼쪽에는 캘리포니아주, 오른쪽에는 뉴멕시코주와 이웃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사막의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막...하면 떠오르는 그런 모래사막이 아니고요. 애리조나의 사막은 마른 먼지 바람이 폴폴 날리고 거칠고 메마른 황무지 사막입니다. 이성호 애리조나 한인회장에게 애리조나 소개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녹취: 이성호 애리조나 한인회 회장] “모래가 있는 사막이 아니고 드라이 된 사막인데요. 물론 산에 나무는 없지만 선인장이 많고, 작은 풀과 나무 사이에 있는 형태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도시화된 지역은 나무도 많고요. 팜트리, 소나무도 자랍니다. 호수도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대부분의 서부 주들처럼 애리조나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주 면적이 약 30만km<sup>2</sup>로 미국에서는 6번째로 크고요. 북한보다는 3배 정도 더 큰데요. 하지만 주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700만 명...그 넓은 땅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수가 아닌 거죠?

애리조나 주민의 대부분은 주도인 피닉스나 제2의 도시인 투산, 유마 같은 도시에 몰려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이성호 애리조나 한인회 회장 도움말입니다.

[녹취: 이성호 회장] “많은 분들이 모래사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피닉스는 5대 도시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250만 명에서 300만 명 가까이 살고 있고, 히스패닉이 50만 명, 백인 200만 명, 나머지 50만 명은 소수민족들...”

그 가운데 한인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는데요.

[녹취: 이성호 회장] “애리조나 한인 2만 명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센서스에서 1만7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유학생 등을 포함해서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인구가 배로 늘고 있습니다.”



투산에 있는 세와로 국립공원(Saguaro National Park)의 선인장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막이란 강수량이 적어서 메말라버린 척박한 땅이죠. 얼마나 덥고 건조하면 사막이 된 걸까요? 그런데요. 애리조나에도 4계절은 있다고 해요. 땅이 넓다 보니 어떤 곳에서는 눈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조리 매그너슨 애리조나주 관광국 공보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매조리 매그너슨 애리조나주 관광국 공보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항상 덥다고 생각하죠.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곳이 덥긴 하지만 습도가 적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못견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애리조나에도 눈이 옵니다. 북부 애리조나 같은 곳이죠. 이곳에도 아주 넓은 소나무 숲도 있어요. 워낙에 땅이 넓으니까요”

이성호 회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녹취: 이성호 회장] “비는 몬순, 여름철에 많이 옵니다. 눈은 피닉스에는 안 오지만 한 시간 이내로 가면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눈을 볼 수 있어요. 사계절이 있지만 봄하고 가을은 짧고요. 하지만 겨울에도 눈이 내리거나 얼지 않아서 영상 5도에서 10도를 유지합니다. 더울 때는 평균 섭씨 45도까지 올라가지만 습기가 없어서 건식 사우나하는 정도입니다. 45도는 피부로 느끼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척박한 자연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척해 갔는데요. 독특한 생태계와 오랜 침식과 풍화로 얻어진 신비로운 풍경은 애리조나의 상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주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호 제2편은 그랜드캐니언을 소개합니다>



## 한글 학교 주최 제1회 요리교실을 마치고 나서...



**최신옥**  
뉴멕시코한인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정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25년 차 가정주부인 최신옥이라고 합니다. 가정주부라면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저 또한 “매 끼니에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입맛 까다로운 남편, 아이들 덕분에 남편보다 더 신경을 쓰며 음식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쉽고 간편하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저만의 비법을 몇 가지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법들을 기회가 된다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었는데, 한국학교를 통해 학교를 지역에 알리는 홍보와 더불어 한인사회의 큰 축제인 김치 축제도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1월 12일에 외국인을 위한 제1회 김치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발효 식품 중의 하나인 김치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건강 음식 중의 대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 이런 김치가 가지고 있는 세계성에, 저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을 더하여 맛있고 건강한, 본인 체질에 맞고 계절에도 알맞은 식자재를 사용한 김치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 40분, 실습 40분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효식품에 대해 잘 모르는 수강생들을 위해 발효 식품이란 사람의 수고와 바람, 그리고 태양이 조화를 이루어 내는 멋진 음식임을 설명했습니다. 수강생들이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본 후, 한국 김장김치 문화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고, 김치 외에 또 다른 발효식품과 음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김장 할 때 함께 먹는 수육을 삶는 법을 알려주고 함께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한국의 정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보람있고 즐거웠습니다. 한국문화와 더불어 건강한 음식을 나누는 기쁨이 수업을 준비하는 수고보다 더 크고 의미 있기에 앞으로 제2회, 3회 요리 교실을 가지려 합니다. 우수한 한국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데 뜻을 같이해 주실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1회 요리 교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주신 한국학교 박영신 교장 선생님과 정지혜 교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 최신옥 선생님의 김치 만드는 법

1. 통배추는 칼을 머리 부분만 살짝 자른 다음 손을 이용하여 두 쪽으로 나눈다. 나머지 반 쪽은 머리 부분만 칼집을 낸다.
2. 2컵 소금에, 물 8컵을 넣고 소금을 잘 풀어준 다음 소금물에 충분히 담가준 다음 자른면을 위로하고 그 위에 소금을 1/3 컵을 뿌려준다. 6-7시간 동안 절인 다음 2-3번 잘 씻은 다음 소쿠리에 받쳐 물기를 빼 준다.
3. 고추는 꼭지를 떼어내고 30분이상 물에 불린 다음 2-3번 물을 갈아준다. 고추씨는 적당히 남겨둔다.
4. 물이 끓으면 풀어 둔 찹쌀가루를 넣고 잘 저어 한 김 식힌다. 찹쌀 풀 대신 쌀밥, 찹쌀밥,オート밀, 보리를 이용하여도 좋다.
5. 사과, 배, 양파를 믹서기에 간 다음 주스만 사용한다.
6. 5번에 젓갈, 새우젓, 생강, 마늘, 고추를 넣고 믹서기에 간다. 고추를 너무 곱게 갈면 맛이 텁텁하다.
7. 무는 곱 방향으로 채 썬다. 파는 3-4cm 로 자른다. 갓은 잘게 썬다.
8. 6번, 7번을 잘 버무리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9. 물기를 뺀 배추를 얹어 놓고 속을 배추 안쪽으로 넣는다.
10. 유리병이나 항아리에 자른면이 위로 향하게 넣고 실온에서 1-2일 둔 다음 냉장 보관한다. ■

## 코로나도 사적지와 쿠아와 푸에블로

이경화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16세기에 이르러 미국 남서부를 제일 먼저 탐험한 사람이 프란시스코 바스케스 데 코로나도 (Francisco Vázquez de Coronado)이다. 그의 이름을 따서 지정된 푸에블로 인디언 마을 유적지인 코로나도 사적지(Coronado Historic Site)가 알버커키 북쪽 버나리요(Bernalillo)에 있다. 쿠아와(Kuaua) 푸에블로(Pueblo) 인디언이 살던 마을 유적지를 왜 스페인의 정복자 코로나도의 이름을 따서 사적지로 부르게 되었을까? 뉴멕시코 역사에 등장했던 코로나도와 당시의 푸에블로 인디언과 관련된 역사를 소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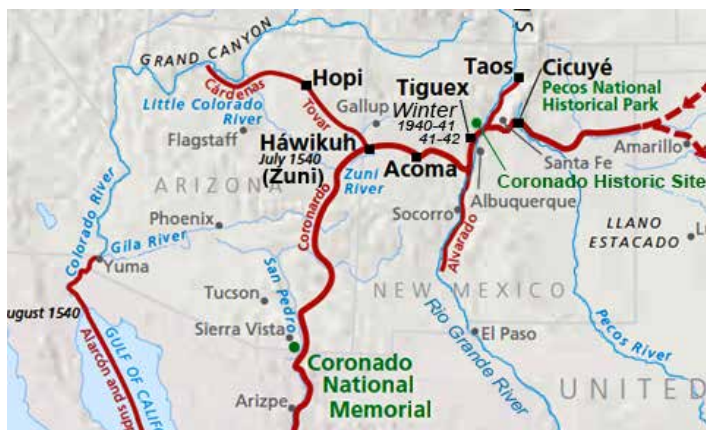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스페인은 지금의 멕시코 땅을



코로나도의 북상 (Remington의 그림)



코로나도초상



정복하여 식민지로 만들고 이름을 누에바 에스파냐(Nueva España), 영어로 번역하면 뉴스페인(New Spain)이라고 불렀다. 16세기 초반기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뉴멕시코를 포함한 미국 남서부는 미지의 세계였다. 그 당시에 헛소문이 하나 퍼돌았다. 시볼라(Cibola)라고 부르는 도시를 포함해서 7개의 도시가 뉴멕시코에 있는데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부유한 도시라는 헛소문이 뉴스페인 사람 사이에 퍼돌았다. 황금의 도시가 있다는 소문을 뉴스페인의 총독이 듣고 그의 총애를 받아왔던 누에바 갈리시아(Nueva Galicia) 지방의 주지사인

코로나도에게 원정대를 조직해서 황금의 도시를 찾아보도록 지시했다. 주지사였던 코로나도는 시볼라 황금 도시를 찾기 위해 역사상 가장 멀고 험한 미국 남서부 원정길을 나선 정복자(Conquistador: 콘키스타도르)가 되었다.

코로나도는 250명의 기마병, 80명의 보병, 1000여 명의 멕시코 지역의 인디언으로 원정팀을 구성하여 수천 두의 말, 소, 양을 이끌고 1540년 3월에 출정했다. 전방 수비대를 앞세우고 북상하여 4개월 만에 시볼라란 도시가 있다고 믿고 있었던 하위쿠(Hawikuh)란 곳, 주니 푸에블로(Zuni Pueblo)의 마을에 도달했다. 코로나도는 주니 인디언의 협조를 요구했으나 주니 인디언은 거부했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 코로나도는 주니 인디언 수십 명을 죽이고 마을을 점령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금으로 장식된 시볼라란 도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작은 탐색대를 북상시켜 탐색 활동을 계속하게 했다. 카르데나스(Cardenas)가 이끄는 작은 규모의 탐색대는 북상해서 호피(Hopi) 인디언을 점령했고 더 북상해서 그랜드 캐니언과 콜로라도강을 발견했다. 유럽사람으로는 처음 콜로라도강과 그랜드 캐니언을 발견한 것이다.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와서 코로나도에게 보고하기를 아무 쓸모 없는 땅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황금 찾기에 몰두하고 있던 이들에게 그랜드캐니언은 아무 쓸데 없는 땅이랑게 맞는 말일 것이다.

코로나도는 하위쿠에 주둔해 있는 동안 헤르난도 데 알바라도(Hernando de Alvarado)에게 작은 탐색대를 구성시켜주고 뉴멕시코 동쪽으로 보내어 리오그란데 강 인근 지역을 탐색하게 하였다. 알바라도는 지금의 알버커키(Albuquerque)와 버나리요(Bernalillo)가 있는 곳에 와서 리오그란데강 주변에 티와(Tiwa)언어를 쓰는 10여 개의 푸에블로 인디언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강을 따라 북상하여 타오스(Taos) 푸에블로와



1940년에 찍은 Kuaua Pueblo Ruin



페코스(Pecos)푸에블로를 방문한 다음 텍사스 경계지역 평원으로 가서 아메리카들소 (버펄로 들소: American Bison/ Buffalo)를 보고 돌아와서 리오그란데강 서편에 머물게 됐다. 하위쿠에 있던 코로나도 원정대 주력 부대도 알바라도가 머문 리오그란데 강가로 합류해서 1940-1941년 겨울을 지나게 되었다. 이해 겨울에 참혹한 전쟁이 터졌다. 인디언과 스페인 원정대 사이에 기록된 전쟁으로는 최초의 전쟁이라고도 말하는 티웨쉬전쟁이다.

코로나도 원정대는 리오그란데 강 서편이며 버나리요 남쪽의 페트로그립 동쪽으로 짐작되는 곳에 주둔했는데 그해의 추운 겨울을 지내기에 충분한 옷과 이불을 갖추지 못한 스페인 군인은 티웨쉬(Tiguex) [발음: TEEwesh] 푸에블로 인디언에게 버펄로 소가죽 300장(어떤 기록에는 이불/담요로 기록되어있다)을 바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자 인디언과 뉴스페인 군인 사이에 불화가 시작됐다. 그런데 뉴스페인 군인이 인디언 여자를 강간하는 사건이 생겼다. 인디언은 그 보복으로 뉴스페인 원정대가 소유한 말 40~60마리를 죽이자 전쟁이 터졌다. 스페인 군인은 전쟁터에서 잡은 인디언 30명을 불에 태워 죽이고 티웨쉬 마을을 공격하자 열세에 몰린 티웨쉬 푸에블로 인디언은 마을을 버리고 주민을 이끌고 메사 언덕 위로 대피하고 진을 쳐서 방어작전으로 들어갔다. 모호(Moho)라고



코로나도 사적지의 쿠아와 푸에블로 집터

부른 메사 위에서 뉴스페인 군인의 공격을 80일간은 버텨 냈으나 물과 식량이 떨어지자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티웨쉬 푸에블로 인디언 남자 300명은 모두 사살되었고 여자들은 노예가 됐다.

코로나도는 겨울을 지낸 후 다시 황금의 도시 시볼라를 찾기위해 동북 쪽으로 원정에 나섰다. 텍사스 평원과 캔자스까지 갔으나 황금의 도시는 찾지 못하고 길 안내를 한 인디언이 코로나도를 속이고 군대를 고생시킨것으로 판단하여 안내자 인디언을 교수형에 처하고 리오그란데강 강가로 다시 돌아왔다. 코로나도는 1542년 봄 원정의 실패를 인정하고 멕시코로 돌아갔다.

쿠아와 푸에블로는 코로나도가 머물렀던 주둔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으므로 티웨쉬 전쟁으로도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추리된다. 코로나도의 원정이후 쿠아와 푸에블로 마을은 폐허로 변해 수백 년 넘게 버려져 있다가 1935년 뉴멕시코주 주 정부로부터 뉴멕시코주 모뉴먼트로 지정받아 역사적 유적으로 보호받게 됐는데 코로나도가 뉴멕시코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지역에 주둔해 있었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의미로 쿠아와 유적지 이름에 코로나도 이름이 부쳐졌다.



15~16세기경에 그려진 Kiva의 벽화를 복원한 그림

코로나도 사적지는 리오그란데강 강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쿠아와 푸에블로 인디언이 1350년경부터 살던 마을이다. 마을 집터에는 허물어진 벽의 흙벽돌만 보이지만 1541년 코로나도가 이 지역에 왔을 때는 1200개의 방을 가진 거대한 3층 집으로, 지금 말로 한다면 대형 아파트 건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건물은 3겹으로 지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제일 바깥쪽은 3층으로 지어 높은 외벽으로 둘러싸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좋게 지었고 그다음 겹은 2층으로 하고 가장 안쪽은 단층으로 지었다고 한다. 대략 1000여 명의 주민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사각형으로 둘러싸인 건물 안에는 광장 마당이 있고 이곳에 10개의 키바(Kiva)가 있었다. 키바는 지하 건물로 제사나 축제용으로 지은 건물인데 보통 키바는 원형으로 짓는데 이곳의 키바는 원형, 사각형, 직사각형 등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키바의 벽에 그려진 벽화는 특별히 주목을 받는 유물이다. 어느 키바에는 벽에 회칠을 85번이나 반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칠을 바르고는 새로운 그림을 그 위에 그렸다. 여러 겹으로 그려진 벽화 중에서 14개를 뜯어내어 복원시키는 힘든 작업을 UNM대학 고고학 연구팀이 해내었다고 한다. 이곳 방문객 센터 별관에 가면 색이 발하긴 했지만 복원된 14개의 벽화를 볼 수 있다.

코로나도 사적지의 쿠아와 푸에블로 인디언 마을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는 140년 가까이 해 왔지만, 이 지역에 코로나도 원정대가 이 근처에 주둔해 있었다는 것은 전해 내려온 기록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고고학적인 물적 증거를 지금까지 발굴한 일은 없었다. 2017년 7 월부터 코로나도 사적지에 대한 대규모 고고학 금속 탐지기 조사가 뉴멕시코 사적지 관리국, 뉴멕시코 역사보존 관리국, 이스레타 푸에블로, 산디아 푸에블로, 산타아나 푸에블로, 홀만스사의 지원으로 코로나도 학회의 클레이 마더스(Clay Mathers) 박사에 의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16개월간의 조사 결과 코로나도 원정대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유물이 발견되었다. 중요한 유물로는 구리로 만든 쇠뇌의 활촉(Crossbow bolthead), 철 사슬 갑옷, 납 총알 등이다. 이 유물들은 1540년 여름부터 1542년 봄 사이에 알버키키와 버나리요 지역에 주둔했던 바스케스 데 코로나도 원정대가 쿠아와 푸에블로 마을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된다.

# 영어 이야기 1

필자가 미국에 1976년 1월에 왔으니 금년 2019년까지 43년을 영어권에서 살아온 셈인데, 아직도 영어가 신통치 않은 것을 보면, 아직 실력이 궤도에 제대로 오른 것 같진 않습니다. 필자는 신문 잡지나 TV에서 보고 듣는, 또는 일상생활에서 들은 표현을 노트에 적어놓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가 되게 노력하는 한편, 우리말 뜻도 유연하게 (flexible) 필요한 부분만 하고, 직역보다는 의역을 하고, 다 같이 재미있게 부담 없이 영어와 우리말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칠면조와 햄(ham)을 많은 분이 드셨기에 고기에 대한 이야기로, 우선 칠면조인 터키(turkey)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25 참전국의 하나로 우리와 형제국가라 일컫는 동남부 유럽과 서(西)아시아에 걸쳐있는, 성경에도 여러 지명이 나오는 근동(Near East)지역의 국가인 Turkey가 있고, 칠면조로 알려진 turkey가 있습니다. 국가인 터키는 영국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은 아주 먼 동쪽에 있으므로 극동(Far East) 지방으로 부르고 터키는 가까운 동쪽에 있으므로 근동(Near East) 지방으로 부릅니다. 사실 지구는 동그니까 서쪽에 있다고 해도 무방하지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해, 남해, 동해바다로 부르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미국은 칠면조 대국답게 야생칠면조(wild turkey)를 주택가에서도(주로 숲근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urkey는 칠면조 자체를 뜻하기도 하며, 칠면조고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말은 먹는 음식으로 이야기할 때 대개 동물 이름 뒤에 고기를 붙여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물고기와 같이 말합니다. 소고기는 소의 고기라고 해서 쇠고기로 쓰는데, 닭고기는 닭의 고기라고 하지 않으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어에는 동물 이름 자체가 고기를(요리한 것도 포함) 뜻하는 것도 있지만(turkey나 chicken, lamb처럼), 소는 cow(황소는 bull), 쇠고기는 beef, 돼지(pig)고기는 pork로 달리 부르는 것도 많습니다.

Ham은 돼지 뒷다리 부분 고기를 뜻합니다. 주로 소금이나 훈제(smoking)를 하여 오래 보관합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노아(Noah)의 둘째 아들 이름도 Ham이고, 3류 배우도 ham, 아마추어 무선사도 ham이라고 합니다. 돼지는 pig 외에도, hog, boar(산돼지 또는 멧돼지)가 있으며, 돼지를 뜻할 뿐 아니라 돼지류에 속하는 동물은 swine(스와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독감(flu) 중에 H1N1 인플루엔자로 불리는 독감을 swine flu(스와인 플루)라고 하는데, 돼지(swine)에서 주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새들은 물론, 사람한테도 치명적인 조류인플루엔자(bird flu)를 avian flu라고 하는데, avian(에이비언)은 라틴어의 새를 뜻하는 Avis(



**이상목**

전직 교수

아마추어무선사(K7MOK)

에이비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항공을 뜻하는 aviation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civil aviation은 민간항공입니다. 렌트카 회사 중에 AVIS가 있는데, 설립자 이름이 Warren Avis인데, 새를 뜻하는 avis에서 나온 이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닭(chicken), 칠면조(turkey), 오리(duck) 등, 알(egg)이나 고기를 위해 농장에서 키우는 조류를 poultry(폴트리)라고 합니다. 닭고기와 달리 beef나 pork, lamb 같은 고기는 요리하지 않은 생고기 상태에서 붉은색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red meat이라고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red meat을 줄이고, 생선이나 닭고기 같은 poultry를 더 먹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고기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송아지(calf)고기는 veal, 사슴고기(deer meat)는 venison입니다. 사냥한 동물의 고기를 원래 “venison”이라 불렀는데, 사냥 동물에 사슴이 많다 보니 “venison”은 보통, 사슴고기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양(羊)고기는 좀 복잡한데, 일 년 미만의 새끼 양을 lamb(램)이라 하는데 고기도 lamb입니다. 그러나 조금 큰 양의 고기는 hogget, 다 자란 어른 양의 고기는 mutton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을 sheep라 하며, 숫양은 ram, 암양은 ewe(유~)입니다.

프로 football팀에 LA Rams가 있는데, 팀의 상징인 뿔이 C자로 휘어진 숫양 Ram이 그려져 있습니다. 뿔이 큰 양으로 Bighorn sheep이 있는데, 90번 고속도로(서쪽 방향으로)로 South Dakota 주를 지나 Wyoming 주에 들어서면, Yellowstone으로 가기 위해 Bighorn National Forest를 지나는데,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또한 양은 순수함(purity)을 지니고, 희생의 제물로 많이 바쳐져서, 기독교에서 Lamb of God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닭은 chicken이고, 수탉은 cock 또는 rooster, 암탉은 hen입니다. 소(牛)도 여러가지로 불리는데, 암소는 cow(일반적인 소를 지칭할 때도 쓰임), 황소는 bull(불)인데, 거세한 bull을 ox라고 하며 bull보다는 순합니다. 농장 등에서 우유와 고기를 위해 키우는 소 떼들은 cattle이라고 합니다. 서부영화에서 카우보이들이 소 떼(cattle)를



## 미국의 국가 The Star-Spangled Banner

성조기(星條旗)를 말하는 The Star-Spangled Banner(더 스타-스팬글드 배너:별이 빛나는 기빨)는 미국의 국가이다. 노래의 가사는 법률가이자 시인이었던 프랜시스 스콧 키(Francis Scott Key)가 작사하였고, 곡조는 존 스탠퍼드 스미스가 ‘천국의 아나크레온에게’(To Anacreon in Heaven)라는 노래로 작곡한 곡조를 사용했다.

프랜시스 스콧 키는 1814년 미영 전쟁중 볼티모어 전투에서 영국 해군의 함포 사격을 25시간 견뎌낸 맥헨리 요새의 수비대와 폐허 속에서 요새에 휘날리는 성조기를 보고 감동해서 ‘맥헨리 요새의 방어(The Defense of Fort McHenry)’란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후에 제목을 성조기(The Star-Spangled Banner, 星條旗)로 바꾸고 곡을 부쳐서 악보로 출판하고나서 이 노래가 유명해졌다.

이 곡은1889년에 해군으로부터 인정 받았고1931년 후버 대통령 임기때에 미국 국가로 인정되었다. 노래 가사는 4절로 되어 있으나 대체로 1절만이 불려지고 있다. 아래에 1절의 영문 가사와 번역한 가사 전체를 소개한다.

O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g,  
Whose broad stripe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O'er the ramparts we watched, were so gallantly  
streaming?  
And the rockets' red glare, the bombs bursting in air,  
Gave proof through the night that our flag was still there;  
O say, does that star-spangled banner yet wave  
O'er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 1절

오, 그대에게 보이는가, 이른 새벽 여명 사이로  
어제 황혼의 미광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환호했던,  
넓직한 띠와 빛나는 별들이 새겨진 저 깃발이, 치열한 전투  
중에서도  
우리가 사수한 성벽 위에서 당당히 나부끼고 있는 것이.  
포탄의 붉은 섬광과 창공에서 작렬하는 폭탄이  
밤새 우리의 깃발이 휘날린 증거라.  
오, 성조기는 지금도 휘날리고 있는가  
자유의 땅과 용사들의 고향에서!

### 2절

저 깊은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해안,  
오만한 적군도 공포의 적막 속에서 숨어 있는 그 곳에서  
드높이 치솟은 절벽 위로 번덕스런 산들바람 따라  
반쯤 가려졌다 반쯤 드러나 보이는 저것이 무엇이나?

## 삼일운동과 유관순

올해 들어 삼일운동이 백주년을 맞이했다. 이 운동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점령을 하던 시기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선 독립을 외쳤던 우리 민족의 일제 항거 운동이었다.올해 삼일운동 백주년을 기념하면서 유관순 열사가100년 만에 최고 등급 훈장을 받았다. 그 동안은 독립 유공자 서훈 등급 3등급인 “건국 훈장 독립장”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삼일운동 백주년을 기념하여 1등급인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유관순 열사는 매봉감리교회 출신이었다.



매봉감리교회는1901년에 세워졌다. 본래 이 교회 이름은“지령리 야소 교당”이었다.이 감리교회는1910년 한일병탄이 되면서 교인들이 지역 주민을 위한 진명학교를 교회 안에 세워서, 한글교육, 농촌계몽, 독립운동을 교육하였다. 유관순 열사의 부친들은 매봉감리교회 교인이었다. 유관순 열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구열이 높았다. 매봉감리교회를 통해서 성장한 유관순 열사는 이후 감리교 엘리스 선교사의 추천에 의해서 서울로 올라가 이화학당에 입학했다. 이화 학당은 감리교단에서 세운 학교로 오늘날 이화여자대학의 전신이다. 1919년 유관순 열사는 서울에서 삼일운동에 참가하다가 이화학당이 휴교를 하자 천안으로 돌아왔다. 이어 4월 1일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열린 독립만세 운동에서 유관순 열사의 부모 유증권과 이소제는 일본헌병들이 쏜 총에 맞아 살해되었고 매봉감리교회 속장이었던 조인원은 부상을 당했다. 당시 16세의 미성년자였던 유관순 열사는 이 독립만세 운동의 주동자로 체포되어 공주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경성복심법원으로 옮겨 징역3년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서대문 형무소에 복역하면서 심한 고문을 받다가 이듬해인 1920년 9월 28일 17세의 일기로 옥사하였다. ■



그림: 맥헨리 요새에 가해온 영국해군의 포격

이제 아침의 첫 광휘를 받아  
충만한 영광에 반사되어 강물 위로 빛나는,  
그것은 바로 성조기. 오! 영원토록 휘날리소서

## 영어 이야기 1

<16 페이지에서 계속>

물고 다니는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코끼리나 고래 등 커다란 젖먹이동물(mammal)의 수컷, 암컷도 각각 bull과 cow라고 합니다. 고기를 뜻하는 “meat”은 주로 소나 돼지같은 젖먹이 동물의 고기를 뜻하는데, 두발 짐승인 닭이나 오리, 칠면조 고기는 주로 poultry(폴트리)로 부릅니다. 견과(nut)류의 속이나 수박 속의 먹을 수 있는 부분도 meat이라고 하며, 게(crab)도 껍데기는 먹지 않고 안의 살만 먹는데, 게살을 crab meat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의 “고기”는 물고기(fish)도 뜻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물고기 잡으러 강이나 개천에 놀러 가거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동요를 부르며 놀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수박 속은 flesh(살) 또는 pulp 라고도 합니다. 수박 껍질은 rind(라인드)라고 하는데, 영양분이 많기에 말려서 먹기도 합니다. 완두콩처럼 네댓 개의 콩을 감싸고 있는 peapod의 껍질, 옥수수나 땅콩류의 껍질은 shuck라고 합니다. 수박은 5000 년전 이집트에서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빨간 속은 라이코펜(Lycopene)이란 항(抗)산화물질 (antioxidant: 몸속의 산소의 산화를 막음으로써, 세포의 산화를 막는 역할로 노화 방지에 기여함)로 인한 것입니다. 토마토보다 많은 양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엘버커키지역에 사는 덕분에 우리는 수박이 스페인어로 Sandia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필자는 평일엔 Rio Rancho에 있는 Meadowlark senior center에 가서 점심을 해결하는데, 오늘은 고기가 없는 메뉴가 나와 meatless meal(고기 없는 음식: meat-free)을 먹고 와서 그런지 힘이 좀 빠진듯합니다.

Turkey는 일상대화에서 별로 좋지 않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극, 영화 등의 실패작의 뜻도 있고, 바보 멍청이란 뜻도 있습니다. “What did you do for that, you turkey?”(너 도대체 뭘 한 거니, 이 바보야!) 신문 잡지에 보면 “cold turkey”란 표현을 종종 보는데, 어떤 일을 갑자기 그만두는 것을 뜻합니다. 대개 “go”나 “quit”과 같이 사용합니다. 서서히 끊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가 완전히 담배를 끊으면 “He quit smoking cold turkey.” 하면 되고, 쇼핑을 매일 하던 그녀가 갑자기 쇼핑가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도, “She went cold turkey.”

## 코로나도와 쿠아와 푸에블로

<15 페이지에서 계속>

“발견된 유물은 원정대가 단순히 이곳에 주둔한 것이 아니라 이곳 푸에블로 인디언을 살해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뉴멕시코 사적지 관리국의 매튜 바르부어(Matthew Barbour) 씨는 말했다. 이번에 발견된 유물은 금년 여름 코로나도 사적지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도와 쿠아와 푸에블로와의 관계가 고고학적 유물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코로나도 원정에 관련된 역사가 어떻게 다시 쓰여질지 기대가 된다.

코로나도 사적지 주소는 Bernalillo의 485 Kuaua Road이며 일주일에 6일,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까지 개장한다. 입장료는 성인 1인당 \$ 5이며 어린이는 무료이다. 코로나도 사적지는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는 모든 뉴멕시코 주민들에게 무료이며 매주 수요일은 뉴멕시코 노인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주고 있다. 가는 길은, Tramway에서 간다면 I-25로 8마일 북상, 550번 도로로 나와서 서쪽을 향해 버나리요를 지나 리오그란데강을 건너 Santa Ana Casino를 지나기 직전 북쪽으로 가는 Kuaua Road로 들어가면 된다. 전화: 505-867-5351 웹사이트: <http://www.nmhistoricsites.org/coronado> ■

참고기사: (1) “Site yields evidence of Coronado’s expedition” by Maddy Hayden/ Albuquerque Journal, December 3, 2018  
(2) “Finding evidence of Coronado at hisoric site” by Carol A. Clark/Los Alamos Daily Post, Nov. 13, 2018

하면 됩니다. “(어려운) 그 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할 때, “We can talk turkey about that issue.”와 같이 “talk turkey”란 관용구(idiom)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소(bull)나 양(ram)의 뿔은 위협적입니다. 그것을 손으로 잡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관을 헤쳐나가는 뜻으로 “take the bull by the horns”를 사용하여, “Why don’t you take the bull by the horns?”(당면한 어려움을 악물고 이겨 나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 훌륭한 영어가 됩니다. 황소 머리엔 뿔이 두개 있기 때문에(또한 두개를 다 잡아야하므로), 복수로 horns가 사용됩니다. 다음 호에 또 뵈겠습니다. ■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http://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mailto:sangsoonc@gmail.com)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 미국의 국가 (17페이지에서 계속)

자유의 땅과 용사들의 고향에서!

3절

그토록 자신만만 호언장담했던 그 무리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전쟁의 파괴와 전투의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집이고 조국이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그들의 피로 더러운 자신의 발자국의 때를 씻어냈도다.  
그 어떤 피난처도 그 용병들과 노예들을  
패주의 공포와 무덤의 암흑으로부터 구해주지 못했고,

성조기는 승리차게 휘날리누나  
자유의 땅과 용사들의 고향에서!

4절

오! 그리하여 자유로운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들의 고향과 전쟁 폐허 사이에서 언제나 일어서리라.  
승리와 평화로 축복을 받으며 하늘이 구한 이 땅이  
우리의 나라를 만들고 지켜 준 신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소서.  
대의가 정당하면 우리는 필승할 것이요,  
우리의 좌우명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성조기는 승리차게 휘날리리라  
자유의 땅과 용사들의 고향에서! ■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5:30am(mon-sat)  
금요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금요기도회(금,저녁)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 클로비스 한인 교회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새벽기도회: 6:00am(월-금)

###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a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  |  |  |   |   |
|--|--|--|---|---|
| <b>알버커키 Albuquerque</b>  | Kelly Liquors #5<br>6124 4th St NW<br>(505) 828-1133                             | <b>식당 Korean Restaurant</b>  | <b>식품점 Korean Grocery</b>   | Matthew Lee's Hair Style<br>(홍정희) 11901 Menaul NE<br>(505-271-1056)   |
| <b>건축/페인트 Painting</b>   | Kelly Liquors #7<br>1418 Juan Tabo NE<br>(505)292-4520                           | Arirang Restaurant<br>1826 Eubank NE, ABQ<br>(505-255-9634)                              | A-1 Oriental Market<br>6207 Montgomery NE<br>ABQ (505-275- 9021)              | Nob Hill Barber Shop<br>(Sunny 박선희)<br>3408 Central Ave SE<br>(505-256-0707)  |
| 1st Choice Painting<br>Mr. Han Cho /조한욱<br>1113 Lawrence Dr., NE<br>ABQ, NM 87109<br>(505-228-0393)                        | Kelly Liquors #8<br>11816 Central SE<br>(505) 299-3366                           | Asian Pear<br>8101 San Pedro Dr. NE,<br>Ste D<br>ABQ<br>(505)766-9405                    | Arirang Oriental Market<br>1826 Eubank NE ABQ<br>(505-255-9634)               | Salon 123<br>7114 Menaul NE<br>(505-872-0301)   |
| <b>공인회계사 CPA</b>   | Kelly Liquors #9<br>1903 Coors SW<br>(505) 873-4477                              | Fu-young<br>3107 Eubank #16 NE<br>ABQ (505-298-8989)                                     | Kim's Oriental:<br>2306 Morris NE<br>ABQ (505-296-8568)                       |   |
| MTM Accounting Service<br>문만길 회계사<br>9428 freedom Way NE<br>ABQ, NM 87109<br>(505-823-2725)                                | Kelly Liquors #10<br>4312 Coors SW<br>(505) 877-2777                             | Ichiban Japanese:<br>10701 Coors Rd NW<br>ABQ (505-899-0095)                             | <b>의류 Clothes</b>   | <b>자동차정비 Auto Repair</b>  |
| <b>교회 Church</b>   | Kelly Liquors #14<br>6300 San Mateo Blvd NE<br>Suite R (505) 797-9966            | I Love Sushi<br>6001 San Mateo Blvd NE<br>ABQ(505-883-3618)                              | Best Outlet: 3300 San<br>Mateo Blvd NE, ABQ<br>(505-884-2202)                 | The Garage 자동차 정비<br>6441 western Trail NW<br>(505-352-5152)<br>마이클 조 thegaragenm.com   |
|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br>Annunciation Church,<br>2621 Vermont St., NE, ABQ,<br>NM 87110<br>(505-652-4627)                   | Stadium Liquor<br>1306 Brodway SE ABQ,<br>NM (505-242-8542)                      | Jasmine Thai & Sushi<br>House<br>4320 The 25 Way, NE<br>Suite 300, ABQ<br>(505-345-0960) | Dot Clothing Co:<br>7200 Montgomery NE<br>Suite C, ABQ (505-830-<br>9400)     |   |
| <b>부동산 Realtors</b>  | 김영신 Yong Shin Kim:<br>Prudential Realtors<br>(505-321-7695)                      | Kim's Oriental<br>2306 Morris NE<br>ABQ (505-296-8568)                                   | Dot Clothing Co<br>9601 Sage Rd. SW<br>ABQ 87121<br>(505) 831-8812            | <b>주택용자 Loan Officer</b>  |
| <b>갈릴리장로교회</b><br>2200 Chelwood Park Blvd.<br>NE<br>ABQ, NM87112   | 이준 June Lee<br>Ready Real Estate<br>(505-730-6178)                               | Sakura Sushi Grill<br>6241 Riverside Plaza NW<br>ABQ (505-890-2838)                      | Fashion USA<br>201 San Pedro SE<br>ABQ NM 87108<br>(505-255-0878)             | 김미경 Mikyong Kim<br>Bank of Albuq. Mortgage<br>3900 Vassar Dr. NE<br>(Office 505-855-0586)<br>(cell 505-379-2944)<br>mkim@bokf.com |
| <b>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b><br>601 Tyler Rd NE ABQ<br>(505-803-7716)  | <b>사진관 Photo</b>   | Samurai<br>9500 Montgomery NE,<br>ABQ<br>(505-275- 6601)                                 | GEM X Imports<br>10701 Coors Rd. NW ABQ,<br>NM 87114 (505-899-<br>3420)       | <b>고산식 Lonnie Ko</b><br>7802 Menaul blvd. NE<br>ABQ,<br>NM 87110 (505-332-6663)<br>(cell 505-379-0433)                            |
| <b>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b><br>3315 Tower Rd SW ABQ<br>(505-331-9584)  | Star Image<br>6600 Menaul Blvd. C-4<br>Abq, NM 87110<br>(505)883-3112            | Shogun<br>3310 Central Ave SE,<br>ABQ (505-265-9166)                                     | J-1 Import<br>4410 Central Ave. SW ABQ,<br>NM 87106<br>(505-839-8697)         | <b>중재서비스</b>  |
| <b>주님의 교회</b><br>12120 Copper Ave NE ABQ<br>(505-903-2297)   | <b>세탁소 Dry Cleaners</b>  | A-1 한식 Cafe<br>6207 Montgomery Blvd. NE<br>(505)275-9021                                 | NEXT Clothes/Gift<br>4201 Central Ave. SW ABQ,<br>NM 87105<br>(505-839-8627)  | ADR-Mediaition Service<br>Sue 1614 Betts Court NE,<br>ABQ, NM 87112<br>(505-332-9249)   |
| <b>단요가 Dahn Yoga</b>   | Barbone's Cleaners<br>3812 Carlisle Blvd NE<br>(505-881-4466)                    | Sushi & Sake<br>5901 Wyoming blvd NE<br>ABQ 87109<br>(505-797-8000)                      | <b>이발소 미장원 Hair Cut</b>   | <b>컴퓨터 서비스</b>  |
| 알버커키 505-797-2211<br>커튼우드 505-792-5111<br>산타페 505-820-2211<br>다운타운 505-262-2211<br>이스트마운틴 505-286-3535<br>www.dahnyoga.com | Executive Cleaners<br>1214 Juan Tabo Blvd. NE<br>ABQ, NM 87107<br>(505-299-5858) | Yummi Hous<br>1404 Eubank Blvd NE,<br>ABQ<br>(505-271-8700)                              | Salon 47(황경희 Kay Latham)<br>5850 Eubank Blvd., NE<br>(505-225-4983)           | SH Consulting(이성희)<br>505-933-9004<br>Remote/Onsite<br>Computer Support.  |
| <b>리커스토어 Liquors</b>   | Kitch Cleaners<br>4606 Lomas Blvd. NE<br>(505-255-0642)                          |  | <b>Hair Dynamic(Ashley)</b><br>1500 Wyoming Blvd. NE<br>#47<br>(505-296-2335) | <b>치과 Dental Clinic</b>   |
| Casa Liquor<br>1649 Bridge Blvd. SW<br>(505)247-2525   | Laundromate<br>Wash Brite Laundry<br>901-A San Pedro SE ABQ<br>(505-266-3231)    |  |   | Rainbow Dental<br>8611 Golf Course Rd. NW<br>ABQ, NM 87120<br>(505-890-6101)  |
| Kelly Liquors #2<br>5850 Eubank NE<br>(505)291-9914  |  |  |   |   |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

**태권도 TaeKwonDo**

---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

**한의학 Acupuncture**

---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

Dr. James D Park: (박달±)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

**화원/원예 Nursery**

---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

**라스베가스  
Las Vegas**

---

**치과 Dentist**

---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

**공인회계사 ACC**

---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

**카페/ 선물 Cafe/Gift**

---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교회 Church**

---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

---

**병원 Clinic**

---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

**건강식품 Health Food**

---

인성내츨: Los Alamos (505-  
662-9681)

---

**미장원 Hair Salon**

---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

**교회 Church**

---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 -4775

---

**리오란초  
Rio Rancho**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로스루나스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

---

**식당  
Chinese Restaurant**

---

Bamboo Express  
143 Highway 314 SW  
Los Lunas NM87031  
(505) 866 6888

---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

**산타페  
Santa Fe**

---

**손톱미용 Nails**

---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

**변호사 Law Firm**

---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

**베이커리 Bakery**

---

베이커리 B&B(양성권)  
38 Burro Alley  
Santa Fe, NM87501  
(213)369-1604

---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

**교회 Church**

---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699-4775

---

**클로비스  
Clovis**

---

**교회 Church**

---

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백화점 Mart**

---

T-Mart  
120 W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

**식당 Restaurant**

---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

**식품 Korean Grocery**

---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

**치과 Dentist**

---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

**화밍톤  
Farmington**

---

**교회 Church**

---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  
rington, Farmington (505-453-  
5461)

---

**상점 Store**

---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19년 3/4월호  
발행일 : 2019.3.6.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광야의 소리 원고는 매 짝수달 25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광야의 소리에 비즈니스 광고내시길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lorientalmarket.com](http://www.al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http://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 The Garage

##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一番

##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http://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http://www.R1newmexico.com)

505.883.9400